모든 힘을 기계화 자동화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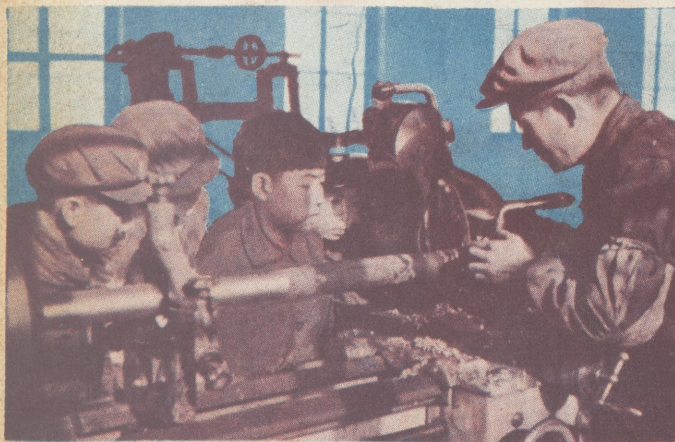
소년단

1960.11

실험과 실습으로!

조국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하며 자라는 우리 소년단원들은 항상 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실험과 실습으로 익히며, 직접 만드는 로동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 나간다.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과 그의 실행을 위한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1차 전원 회의 결정이 나온 이 후 공작 기술 크루쇼크 사업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구멍을 뚫고 싶거든 무엇이든지 가져 오라!》 중화 중학교 철공 크루쇼크원들은 이처럼 능숙하게 볼반을 다룬다.

↑ 평남 중화 중학교의 어린 기술자들은 가끔 농기계 공장을 찾아가 기술자 아저씨들에게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 평양 중성 중학교 꼬마 선방공들은 이처럼 쇠를 깎아 여러가지 물건을 척척 만들어 낸다.

← 평양 남산 공업 학교 단 어린 재봉사들은 제법 자기들의 손으로 교복을 만든다.

→ 남산 공업 학교 단 라지오 크루쇼크원들은 제법 라지오 수신기를 다루며 지식과 기술을 익혀 나간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0년 11호 내용

항일 빨찌산 회상기

어버이의 사랑

리 오송　　　　그림 최 순천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부모 형제들을 원쑤들에게 빼앗기고 빨찌산 대오에 들어온 나 어린 전사들을 어버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피며 키워 주셨다.

당시 군부에서 주로 내부 련락 임무를 수행하던 전령병들은 거의 다 부모를 잃은 어린 고아들로써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혁명의 붉은 전사로 성장하였다.

내가 빨찌산에 들어 가 원수님을 처음 만나 뵈옵게된 1938년 봄이였다.

그 때 원수님께서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대로 찾아 오게 된 경로에 대하여 차근차근 물으시였다. 당시 겨우 열 두살이였던 나는 부모님 앞에서처럼 지난 일들을 빠짐 없이 세세히 말씀 드렸다. 처창즈 유격 근거지에서 아버지가 굶어 돌아 가실 때 내 손을 붙잡고 어린 누이 동생을 데리고 내두산으로 찾아 가라고 하시던 일이며, 그리고 여섯살 난 누이 동생을 데리고 내두산으로 찾아 가던 도중에 공작 나갔다가 부상당한 누나를 우연히 만나 그에게 녀 동생을 맡기고 혼자 내두산으로 간 일이며, 그 후 누나와 녀 동생이 내두산으로 가다가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인편에 들었다는 이야기 등….

원수님은 나의 말을 묵묵히 다 들으시고 나서 조용히 나를 끌어 당겨 안아 주시였다. 나는 그 때 그이의 눈'시울에 이슬이 맺힌것을 보자 참고참던 설음이 한꺼번에 터져서 그만 원수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오송이는 반드시 앞으로 부모 형제들을 빼앗은 일제 원쑤놈들을 쳐부시고 나라의 기둥이 될 훌륭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라고 원수님은 나를 고무하여 주셨고 앞날에 대한 희망과 자신심을 안겨 주셨다.

나는 이때부터 원수님의 따뜻한 슬하에서 자랐다. 직접 원수님을 모시고 자란 그 동안의 많은 일들을 나는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다. 다만 나의 기억에서 언제나 잊혀지지 않는 한가지의 귀중한 사실에 대해서만 회상하려 한다.

내가 열 세살 나던 1939년 가을 안도현 어느 수림 속에서 우리 부대가 숙영하던 때의 일이였다. 우리 전령병들은 원수님이 거처하실 천막을 치고 그이가 돌아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숙영하는 각 부대들을 돌아 보시려 나가신 원수님께서는 밤이 퍽으나 깊었어도 좀처럼 돌아 오시지 않았다. 원수님이 안 계신 천막 안은 텅 빈 것만 같았다.

《왜 안 오실가?》

《이제 돌아 오실거야.》

《그러다 또 먼저'번처럼 어느 련대 지휘부에서 주무시면 어쩌니?》

원수님이 돌아 오시기를 기다리던 나머지 우리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천막 밖을 들락날락하면서 안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어디 계시나 내가 알아 보마.》하고 나는 성급히 밖으로 뛰여 나갔다.

어둑 컴컴한 수림 속은 잠든 듯이 고요하였다. 나는 여기 저기에 피워 놓은 불무지 곁에서 모두 곤히 잠든 대원들이 깨여 날가 두려워 발'소리를 죽여 가며 수림 속을 걸어 갔다.

가실만한 곳을 다 찾아 봐도 원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 사이에 혹시나 천막으로 돌아 오시지 않았을가하여 나는 다시 천막쪽으로 발'길을 돌리였다.

늦은 가을, 북방의 깊은 수림 속의 밤 공기는 추위를 느낄 정도로 몹시 찼다. 대원들은 땅에 떨어진 나무'잎들을 긁어 모아 이불마냥 몸에 덮고 잠들고 있었다.

나는 잠든 동무들의 사이를 조심조심 걸으며 맞은편 수림 속으로 갔다.

나는 거기에서 허리를 굽히시고 흩어진 나무'잎들을 다시 모아서 잠든 대원들을 덮어 주고 계시는 원수님의 모습을 별'빛에서 알아 볼 수 있었다.

《우리에게 있는 모포를 가져오시오》 원수님은 곁에 서 있던 전령병에게 나직이 말씀하셨다.

《담요는…사령관 동지의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령병이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에겐 천막이면 충분하오. 이 동무는 감기에 걸렸으니 든든히 덮어 줘야겠소. 어서 가져 오시오.》

인자하시고도 엄격한 원수님의 지시에 못'이겨 전령병은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령부쪽으로 사푼사푼 걸어 갔다.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나무'잎을 모으시는 원수님의 모습이 불무지의 불'빛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잠든 대원들의 얼굴을 내려다 보시며 빙긋이 웃음을 띄우신 그이의 얼굴을 나는 똑똑히 알아 볼 수 있었다.

대원들에게 돌려지는 원수님의 이 깊고 넓은 사랑과 배려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잠든 대원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며 찬 이슬을 막아 주기 위해 흩어진 나무'잎들을 쓸어 모으고 계시던 원수님의 모습을 나는 이십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잊을 수 없다.

그 뿐이랴! 감기 든 대원을 알아 보아 두셨다가 오직 한장 밖에 없는 원수님 자신의 모포까지 가져다 덮어 주시는 그 뜨거

운 사랑!

이것을 어찌 다만 사령관의 한 대원에 대한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으랴! 친 어버이의 사랑인들 이보다 더 하랴 싶었다. 이 사랑을 받으면서 원수님의 전사로 자라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가를 다시 한번 느꼈다.

나는 마음 속 깊이 다짐했다. 그이가 가리키는 길에서 오직 혁명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움으로써 이 대해와 태산 같은 은정에 보답하리라고….

나는 천막을 향하여 재빨리 발'길을 옮겼다.

이윽고 원수님께서 돌아 오시였다.

《왜들 아직 자지들 않고 있소?》

그이는 천막에 들어서자 우리를 돌아 보시며 이렇게 물으셨다.

《……》

우리는 얼른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 보고 있었다.

원수님께서 주무셔야 하겠는데 단 한장의 모포를 감기에 걸린 대원에게 가져다 덮어 주시고 없는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을 뿐이였다.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곧 알아 차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모포가 없이도 춥지 않게 잘 수 있소. 걱정 말고 자 이리로 와서 내 옆에 다들 누우시오. 서로 몸을 의지하고 자면 그만 아니요!?》

모포가 있을 때에도 원수님은 늘 혼자 덮으시지 않았다. 그이의 간곡한 말씀에 못'이겨 언제나 우리는 그이의 량 옆에서 한장의 모포를 함께 덮고 자는 것이 일수였다.

이렇게 우리는 마치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 안기여 단란하게 자라듯이 원수님의 품에서, 그이의 부드러운 손에서 컸다.

오늘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년들도 바로 원수님의 그 넓고 깊으며 따뜻한 배려와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길에서 새 생활, 행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호에서 계속)

① 원주는 정신이 가물거렸다. 아무리 움직여 볼래야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총알은 계속 주위에 비'발치듯 쏟아졌다. 문득 적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경호와 그의 부대 동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원주는 저도 모르게 선뜻 고개를 들었다.

② 원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명령을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 밑에 한치 두치 기여 가기 시작하였다.

그의 머리 속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보다는 전우들의 생각이 앞섰다.

③ 원주는 더는 기여 갈 수가 없었다. 이때에 가까이에서 요란한 기관 총 소리가 들려왔다. 정신이 든 원주는 번쩍 고개를 들고 앞을 살폈다. 바로 언덕 아래에 전투를 하고 있는 경호네 기관총 부대가 보였다. 원주는 더는 지체할 수 없어 데굴데굴 굴러 언덕 밑으로 내려갔다.

④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원주는 나무를 붙안고 가까스로 일어나 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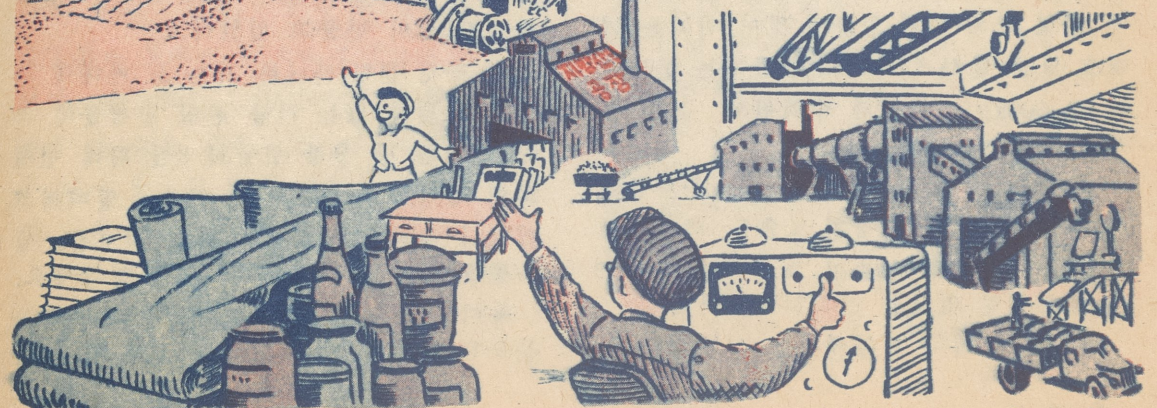
《동무들! 빨리 후퇴를 하시요!》하고 원주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다. 그는 우정 태연한 체 하려고 애를 썼다.

⑤ 경호는 곧 분대원들을 인솔 하고 재빨리 골짜기를 빠져 나갔다. 경호는 원주가 그처럼 심한 부상을 입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그가 원주에게로 다가 오려 할 때 원주는 손짓으로 빨리 빠져 나가라고 신호를 보내였던 것이다.

⑥ 임무를 완수한 원주는 다시금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젠 정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눈을 감았다.

어딘가 깊은 구렁 속에 빠져 들어 가는 것을 느끼며…….

(다음 호에 계속)

철이와 옥이

옥이—소년단원 동무들! 철이와 나는 이번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모든 일을 기계로 하기 위해 일떠선 우리 나라 곳곳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헤리콥타를 타고 떠난 우리는 가는 곳 마다에 공장이 그물처럼 덮여있고 공장과 농촌 그 어디에서나 기계 소리, 풍년의 노래 소리 흥겨워서 어느 곳부터 가보면 좋을지 몰라 망서리다가 어느덧 무연한 재령'벌에 들어 섰답니다.

《그것 봐 빨리 아무데나 내리자니까 말 안 듣구》 하고 내가 화를 냈더니 《농촌에서 기계로 일하는 것을 먼저 보자꾸나! 저기 뜨락또르, 탈곡기, 자동차…》 하고 철이가 떠드는 것이였어요.

우리가 내려서 보니까 그곳은 황남 재령군 신재령 농업 협동 조합이였답니다.

멀리 논밭들에서는 뜨락또르들이 가을 밭갈이를 하고, 탈곡장에서는 탈곡기, 정선기(곡식과 검불을 가려 내는 기계) 가 전기 모타에 의해서 돌아 가고 있는 것이였답니다.

자동차들이 쉴새 없이 오고 가며 벼를 실어 나르고 련결차를 단 뜨락또르들도 분주히 퇴비를 실어 나르는 것이였어요.

가축사에서도 사료 절단기, 사료를 나르는 밀차들이 오고 가는 것이 마치 공장 파도 같았어요.

《참말 멋있구나》하고 우리가 떠들었더니《멋있구 말구 우리 조합 일을 해주는 기계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뿐만 아니다. 봄에는 파종기로 밀 보리 종자를 심고 콤바인으로 밀 추수를 한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가 있은 이후 우리는 지금 벼도 기계로 심고 김도 기계로 매고 모든 일을 다 기계로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등'짐을 지고 손끝으로 농사를 짓던 일은 옛날로 되였다.》하고 탈곡하던 한 아저씨가 만족한 얼굴로 말씀하시는 것이였어요.

이 아저씨의 말씀을 이어《얼마전에 자강도 산'골에 있는 친구한데서 편지가 왔는데 그 곳에서도 옥수수 탈곡기, 정선기를 전기로 돌리고 있대… 그리고 나라에서 산'골 비탈진 밭도 갈 수 있는 작은 뜨락또르를 만들어 보내여 밭갈이도 옥수수 파종도, 다 뜨락또르를 가지고 하게 된다고 자랑했던데…》

《옛날엔 내가 벼'가마니를 둬가마니씩 썽썽 메고, 소도 잘 몬다고 훌륭한 농사'군이라고 칭찬 받았는데 이젠 모든 일을 기계가 하게 되였으니 기술을 배워야 훌륭한 농민이 되겠군 그래》하고 아저씨들은 신이 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였어요.

이야기를 주고 받는 아저씨들 얼굴마다에는 행복과 자랑이 넘치고 있었어요.

지주놈들 밑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손에서 피가 나고 등뼈가 휘도록 일해도 입에 풀칠 조차 하기 힘들던 것이 이제는 기계로 일을 헐하게 하고도 금년에는 한집에서 3t 500kg의 곡식과 수백원의 돈을 분배 받는답니다.

헤리콥타를 다시 타고 떠나는 우리들은 아저씨들의 행복에 잠긴 모습을 바라보며 머지않아 우리의 농촌이 모두 기계화되고 더 행복해질 앞날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에 공화국 정부에서는 평양, 해주, 함흥, 신의주에 농기계 공장을 새로 세우고 평지대와 산간 지대의 특성들에 알맞는 농기계들을 만들어서 농촌에 더 많은 농기계들을 보내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나라 농촌의 모든 일이 다 기계로 하게될 그날도 머지 않았지요.

철이—옥이 동무는 농촌 이야기만 신이 나서 하는데 우리 나라 공장들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불과 2~3년 전부터 곳곳에 일떠서기 시작한 지방 산업 공장들도 참말 굉장해졌어요.

재작년에 내가 갔을 때는 3 대의 베틀과 8 대의 물레로 일하고 있던 황주 직물 공장이 이번에 들려 보니까 150 대의 력직기가 돌아 섰고 1년에 160만 메터를 짜내는 큰 공장이 되였어요.

이번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이 나온 이후 이 공장에서는 모든 일을 기계화하기에 힘쓰고 있었어요.

함남 단천 식료 공장에서도 지금 식료품을 반죽하는 기계, 야채나 과실의 껍질 벗기는 기계, 자르는 기계 등 수 많은 기계들을 창안해서 손 로동을 할 때 보다 맛 있고 다양한 식료품을 몇 곱이나 더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였답니다.

청진 만년필 공장에서도 만년필'대, 뚜껑, 촉꽂이 등을 만드는 기계들인 프랑크 프레스, 후레숀 프레스, 전문 절삭기, 축압연 로라 등 기계를 설치하여 만년필을 산더미 같이 만들고 있었어요.

이 공장 뿐만 아니라 가는 곳 마다에 그물같이 덮여 있는 지방 산업 공장들이 모두 이처럼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기술 혁신에 일떠서고 있으니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일용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지요.

옥이와 나는 직물, 식료품, 일용품들을 분주히 만들어 내는 이곳 저곳의 지방 산업 공장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 보다가 문득 눈에 띠우는 마동 쎄멘트 공장에 들렸습니다.

정전 후 불과 몇년 동안에 아주 훌륭한 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였다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조선을 보고 놀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도 참말 놀랐습니다.

사람의 손 로동을 거치지 않고 쎄멘트가 생산되여 자동차에까지 저절로 실려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보아도 신기하게만 보였답니다.

자동하차기(저절로 짐을 부리우는 밀차)에 실려 들어 온 석회석은 1차 파쇄기(처음에 좀 굵직하게 돌을 부수는 기계)에 와서 쏟아지면 깨진 돌은 다시 2차 파쇄기(두번째 보드랍게 돌을 부수는 기계)에 저절로 들어 가는 것이였어요. 2차 파쇄기에 들어 간 석회석은 가루가 된답니다. 가루는 원료 분쇄밀(쎄멘트의 모든 원료를 가루 같이 만드는 기계)에로 미끌어져 가서 점토, 철광, 규석 등 원료와 함께 죽물처럼 되여서 웅장한 소성로로 들어 갑니다. 소성로는 1,400도~1,500도의 열을 내여 알 같은 쎄멘트를 구어 내는데 그것은 다시 석고와 같이 섞여서 분쇄기에 들어가 쎄멘트가 되는 것이였어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쎄멘트는 단 한 번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니 얼마나 굉장합니까! 때문에 그렇게 큰 공장에 로동자라군 아저씨들이 퍽 적었습니다. 옥이와 나는 이 공장에서 누구든지 만나자고 찾아 다니다가 중앙 사령실 문을 열었어요. 여기엔 아저씨가 한분 계셨는데 아저씨는 단추같이 생긴 수많은 스위치와 시계 같은 것들이 달린 기계 앞에서 빨간 불, 파란 불이 켜지는 신호 장치를 보며 무엇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가 찾아 온 뜻을 알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앙 사령실에서는 아저씨 혼자 앉아서 자동계기, 자동 기록장치, 신호 장치를 보고 원료가 잘 배합되는가 로가 잘 돌아 가는가 기계가 잘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어 제때에 모든 것을 조절해 주는 것이였습니다.

공장의 모든 상태는 사령원 아저씨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었어요.

이 공장,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는 흥남 질안 비료 공장, 룡성 육류 가공 공장 등 수 많은 공장들이 이처럼 자동화되여 있습니다.

아직 이 공장들처럼 되지 못한 공장들은 지금 우리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이 공장들처럼 모든 일을 기계화 자동화 하기에 있는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모든 일을 기계화 자동화하기 위해 들끓는 우리 나라에서는 앞으로 일은 더욱 헐해지고 물품은 몇 곱 더 많이 쏟아지게 되며 명년부터 실시되는 7개년 계획도 보다 빨리 수행되게 될 것입니다.

(동요)

소년호 뜨락또르

부릉부릉
소년호 뜨락또르
낟가리 옮겨가네

돌다리 산굽이 돌아서
부지런히 조합마당에로
쉬지 않고 실어 가네
조합 마당 낟가리
산처럼 높아가네
벼더미 산더미가

소년호 뜨락또르야
쉬지말고 달려라
아빠 엄마 일'손 도와

협동 마당 올 때는
벼낟가리 가득 싣고
벌에 나갈 때는 거름 듬뿍 싣고서

평남 강서군 암화 중학교
3학년 황 영섭

이 영예를 "모범분단"의 이름으로 보답 하겠다

우리 분단이 모두 석암 소년단원 중앙 야영소에 간다는 소식은 인차 분단마다에 알려졌습니다.

《좋겠구나 언제 떠나니?》

《10월 3일》

《준비는 다 됐니?》

《응 근데 이제 대수 과목이 남아 있어》

우리 분단 동무들은 다른 분단 동무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주기 조차 바빴습니다.

야영소로 떠나기 전 분단이 할 일은 실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단 위원회를 가지고 떠나기 전에 할 일과 야영소에 가서 분단 생활을 어떻게 재미 있게 할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최 영화, 주 영자 동무들은 허 봉전, 전 경희 동무의 뒤떨어진 대수 공부를 돕도록 했습니다.

우리 분단은 다른 분단 보다 하루에 몇 시간씩 더 공부하여 15일 분 공부를 앞당겨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뒤떨어진 동무들을 더욱 잘 도와 여느때처럼 잘 알게 해야 했습니다.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또하나의 배려로 분단별로 중앙 야영 생활을 하게되는데 이 첫 영예를 가지게된 기쁨과 자랑을 어디에 다 비기겠습니까.

이 달에 단 위원회에서 우리 분단이 맡은 일도 다른 때보다 더 훌륭히 했습니다.

분단 지도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분단이 약수에서 자동차에 오르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소년단원 동무들이 나와서 오래오래 손을 흔들며 바래 주었습니다.

한 동무도 빠짐없이 처음으로 분단이 다 함께 기차를 탄 우리의 려행은 더욱 흥겹고 즐거웠습니다.

여러가지로 재미 있는 야영소에서의 나날은 하루처럼 즐겁게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중앙 야영소에서 다른 학교에서 온 동무들과 자주 만나 사업 경험을 나누고 좋은 점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단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 가를 의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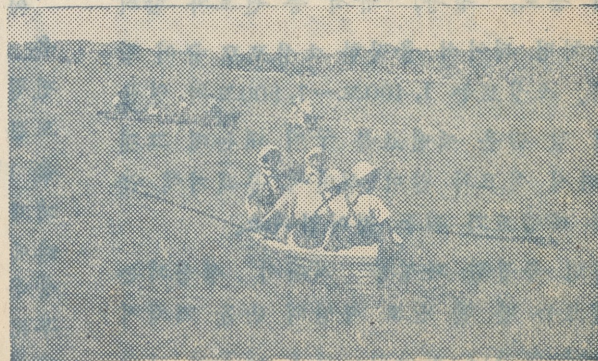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야영소에 와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서 분단 동무들의 좋은 점과 나쁜 점도 더욱 날날이 알수 있었습니다.

분단 지도원 선생님은 늘 분단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일일이 알려 주셨고 뽀트 놀이와 등산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단이 다 같이 중앙 야영 생활을 한 이 기쁨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이 고마운 배려를 《모범 분단》의 이름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평북 창성군 약수 중학교 단
제 1분단 위원장 허 정제

석암 야영소에서의 즐거운 뽀트놀이의 한때

철수는 달라졌습니다

철수가 석암 소년단원 중앙 야영소로 떠나기 며칠전이였습니다.

하루는 내가 직장에서 돌아 와 아빠트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머니!》

하고 철수가 마주 뛰여 나오며 기쁜 낯으로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니?》

나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오빠가 야영에 간다고 저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경숙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먼저 대답했습니다.

《우리 분단이 다 선생님과 함께 가요. 단 총회에서 결정 됐어요.》

철수는 경숙이에게 씽긋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빤 제 자랑만 하는구나 김 일성 원수님은 우리 평양에 사는 소년단원들이 모두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리용하여 2일간씩 차례로 야영을 가게끔 해주셨어요.

그래 우리 분단에서도 이제 간다고 선생님이 말씀 했어요》하고 경숙이도 지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공부를 더 잘 해야 한다. 원수님의 이 고마운 배려를 무엇으로 보답하겠니》

《걱정마세요 어머니》 철수는 이렇게 말하고 야영에 떠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날 밤으로 나는 올해에 새로 마련한 재봉기로 철수가 메고 갈 배낭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철수네 남매

철수는 배낭을 꾸려 놓고 사흘 동안이나 떠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였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야영소에서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나는 분단 동무들과 같이 포근한 침대에 누울때 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뉘우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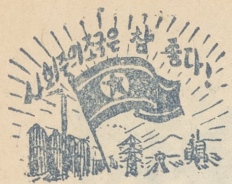
어머니 경숙이에게 말해 주세요.

이제 돌아 가면 산수 공부를 잘 도와 주겠다구요. 정말입니다.》

야영소에서 돌아 온 철수는 지금 공부도 잘 하지만 모든 일에 앞장 서고 있다고 선생님은 나를 만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피복 공장에서 일하는 나도 요지음 철수와 경쟁을 걸고 더 많은 생산을 내는 한편 한 가지 이상의 높은 기술을 가지기 위해 기술 공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나는 우리집 철수에게도 늘 말합니다만 이처럼 누구나가 다 마음껏 공부하고 게다가 또 야영 생활까지 즐기는 행복—이것은 사회주의 제도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 속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평양시 문신 중학교 제 3학년
허 철수의 어머니 김 분녀

이 좋은 조국에서 오래 오래 살고싶다

글 김준규　　사진 리종록

평양시 의성 중학교 22분단 배 영건 동무네 반 동무들은 일본에서 첫번째 귀국선으로 돌아 온 권 종률이네 할머니를 찾아가 다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

《나라 없는 설음을 너희들이야 알겠니》

반 동무들이 모여 앉자 할머니는 오랜 이국살이로 주름 진 얼굴에 행복한 웃음을 가득 담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있을 때 종률이 아버지는 경상북도 영덕에서 하루갈이 남짓한 지주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러나 온 1년 비지땀을 흘려 지어 놓은 농사는 일본놈들과 지주놈이 다 빼앗아 갔답니다.

게다가 그때 어느 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종률이네 집에는 큰 불행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소금 장사까지 하는 황지주놈과 같이 먼 바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리하여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지주놈은 그냥 배를 몰자고 했습니다. 지주놈에게는 사람의 생명 보다도 배에 실은 소금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목숨부터 살고 봅시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웨치고 소금을 바다에 처넣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 겨우 륙지에 배를 대였단다.》

《야!》 손에 땀을 쥐고 듣고 있던 반 동무들은 할머니의 이 말씀을 듣고 손'벽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반 동무들의 이 기쁨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돌아 온 며칠 후에 황 지주가 할아버지를 찾아 왔습니다.

《땅을 내 놓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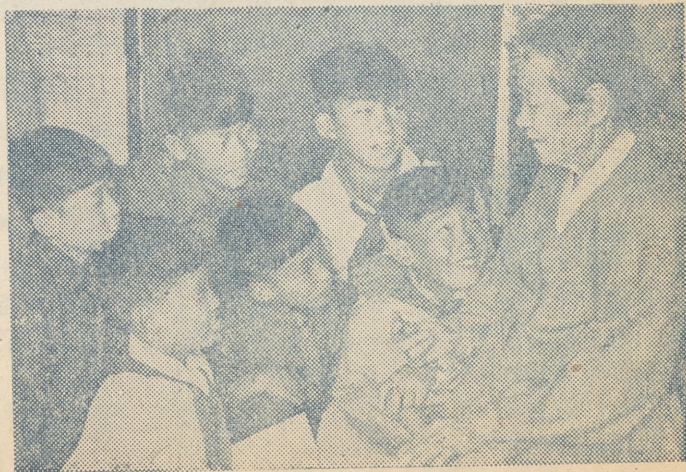
며칠을 두고 끙끙 앓으면서 황지주놈은 이렇게 《손해》를 받아 낼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소금을 바다에 처넣은 것은 할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였습니다.

반 동무들은 할머니의 이 말씀을 들으며 《지주놈들은 모두 그렇게 악한 놈들이였구나 제 목숨 산 생각은 조금도 못 하고》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얼마 되지 않는 소작 땅마저도로 지주놈에게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돌아 가시고 종률이네 아버지는 행여나 살'길이 있을가 하여 일본으로 건너 갔답니다.

일본 여러 곳으로 돌아 다니며 철로'길 고치는 일도 했고 미쯔비시란 왜놈 자본가의 공장에서 선반공으로도 일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의 가슴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갔습니다. 일제 놈들이 망한 후에도 조선 사람들에 대한 천대와 멸시는 그대로 심했습니다.

고된 로동으로 병이 생겨도 돈이 없어 치료할 수 없었고 아이들은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사람들은 싸워 일어났답니다.

《조선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라!》는 구호를 들고 매일처럼 수 많은 군중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조선 아이들은 일본 학교 교실을 빌어 우리 나라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안 미국놈들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종률이의 큰 누나인 민혜가 울면서 집으로 왔더랍니다.

《미국놈들이 짚차를 타고 와서 우리를 막 내쫓아요.》

민혜는 책보를 안은 채 할머니의 품에 안겨 엉엉 목놓아 우는 것이였습니다.

놈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공부는 계속되였습니다. 날씨 좋은 날이면 산에 가서 공부하고 비 오는 날이면 기차 다리 밑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억눌려 살던 어제'날의 조선 사람이 아니였지!》

할머니는 이 말씀을 힘 있게 하셨습니다.

놈들은 투쟁에 나선 조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 감옥에 쓸어 넣었습니다. 종률이네 아버지도 여러 해'동안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그만 감옥에서 돌아 가셨답니다.

반동무들은 모두 할머니의 이 말씀을 들으며 자기네 반에서 함께 배우며 즐기는 종률이와 종률이네 누나들을 둘러 봤습니다.

종률이의 큰 누나는 지금 평양 음악 대학에 다니고 둘째 누나는 무용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민혜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음악가가 되고 싶었답니다. 그래 잘 사는 집 일본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켜며 뽐내는 것을 볼 때마다 사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치밀었으나 끝내 어머니에게 말을 못했답니다.

민혜는 조국에 돌아 와 음악 대학에 입학한 날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그때의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조국의 품에 안긴 행복감을 어떻게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있겠니》

선교 영화관에서 일하시는 종률이네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률이의 형인 종성이와 세째 누나 연혜는 남포 유자녀 학원에서 공부합니다.

《일본 이께다 반동 정부는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 오는 것을 방해하려 하지만 그들은 조국의 품에 안기고야 마느니라》

할머니는 잠시 쉬였다가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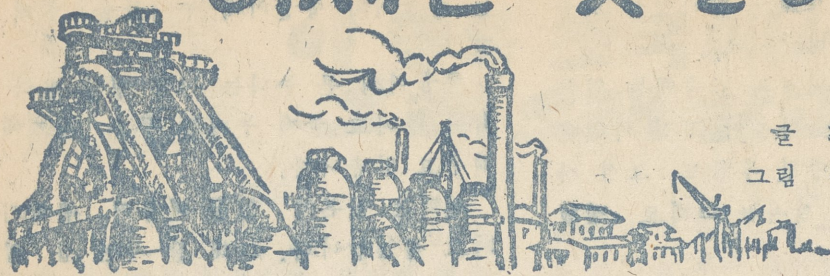
《놈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조국을 사랑하는 조선 사람들의 마음은 못 이기지

그러기에 이번에 끝내 귀국 협정을 수정없이 명년 11월 12일까지 1년간 더 연장 하기로 되지 않았니, 이게 다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은덕이니라.》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같이 일하며 잘 사는 나라,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조국으로 재일 동포들은 모두다 돌아 올 것입니다》

영건이네 반동무들은 할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헤여졌습니다.

이제는 옛말이다

글 최옥선
그림 유환기

로력 영웅 승 신범 아저씨는 지금 황해 제철소 부 지배인이시다. 아저씨는 일제 시기 열두살 때부터 일본 자본가놈들 밑에서 갖은 압박과 착취를 받으면서 고된 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아저씨는 해방 후 공장의 주인이 되였으며 나라의 주인이 되였다. 지금 아저씨는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이시다.

아저씨에게는 일본 자본가 놈들에게서 천대받고 착취받던 눈물겨운 수 많은 이야기가 있다. 아래에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을 소개한다.

1,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여읜 아저씨는 황북 사리원에서 토공 로동을 하는 형님하고 단 둘이 살았다. 형님이 로동해서 번 돈으로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아저씨는 여섯살 때부터 먼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고 밥도 하며 고된 일을 하였다.

2, 학교에 가고 싶어 밤낮 울고 울다가 열살 되던 해 형님이 학교에 겨우 입학 시켜 주었으나 월사금을 낼 수 없었다.

아저씨는 하는 수 없이 철로 가름길을 맡아보는 일본놈이 재벽에는 졸린다고 남을 짰워 시키는 것을 하루 6전씩 받고 맡아했다. 아저씨는 학교에 다니는 기간 단 하루도 편안한 잠을 못잤다.

3, 소학교를 졸업한 아저씨는 철공장 주인인 미야자끼란 왜놈네 집 심부름'군 겸 철공장 풀무질'군으로 들어 갔다. 낮에는 숨을 돌릴 짬도 없이 풀무질을 하고도 밤이되면 주인집 잡'일을 하느라고 밤잠도 자지 못했다. 그러나 주인놈은 품값커녕 제대로 먹이지도 않으면서 피곤해서 좀 졸기만 해도 귀청이 째지도록 때렸다.

4, 아저씨는 미야자끼놈네 집에서 견디다 못하여 황해 제철소로 도망쳐 와서 석탄 재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였고 배에 짐 싣는 일도 하였다. 하루 열 두시간 이상의 고된 로동을 하였으나 임금이란 밥값도 되지 않아 배'간에서 거적을 깔고 새우 잠을 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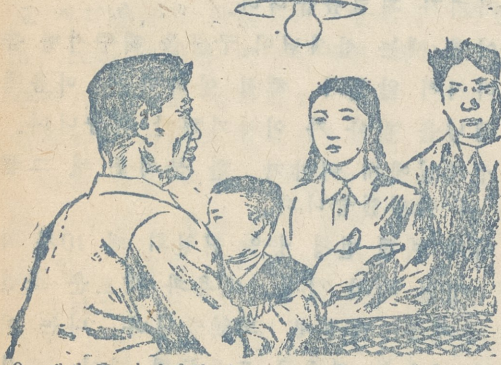
5, 조선 사람들은 하루종일 죽도록 일해도 왜놈이 받는 돈의 5분의 1도 못되는 50전을 받았다. 그런데 하루는 아저씨에게 친한 동무가 찾'아 와서 잠'간 만나 이야기했다고 하루 임금을 잘라 먹는 것이였다.

목숨을 이어 나가기 위해선 이 분한 일도 참지 않으면 안 되였다.

6, 어느날 퇴근하시던 아저씨는 공장 상점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일본놈들은 진탕치도록 먹으면서도 로동자들에겐 썩은 정어리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래서 상점에선 서로 앞을 다투며 썩은 정어리를 사고 있는데 일본인 경비놈은 시끄럽다고 조선 녀인들에게 물을 끼얹는 것이였다.

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아저씨는 일본놈을 때려 눕혔다.

7. 왜놈들이 아저씨를 그냥 둘리 없었다. 그 후 아저씨는 눈보라치는 겨울날 밤, 집 식구들을 데리고 정처 없이 살'길을 찾아 떠났다. 아저씨는 인천 부두에도, 성천 광산에도 가 보았으나 어디를 가나 일본놈들과 자본가놈들 밑에서 일하는 곳은 마찬가지였다.

8, 몇년이 지난 후 하는 수 없어 다시 황해 제철소에 찾아 와 갖은 학대와 착취, 굶주림에 시달리며 일하다 8.15 해방을 맞이했다. 일제놈들과 온갖 착취자들이 물러 가고 공장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된 아저씨는 자기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을 위하여 마음껏 일하게 되였다.

9, 해방 후 아저씨의 이 모든 이야기는 옛말로 되였다. 자식 5 남매를 모두 전문, 중학, 인민 학교에 입학시켜 마음껏 공부시키고 있고 화려한 아빠트에서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저녁이면 가끔 아이들을 모아 놓고 오늘 로동당 시대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일제 놈들과 자본가 놈 밑에서 생활하던 이야기를 옛'이야기처럼 해주신다.

10, 나라의 부강을 위해 항상 몸바쳐 일하시던 아저씨는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고 정전 후 미제놈들이 혹심하게 파괴한 용광로 복구에서 영웅성을 발휘하여 로력 영웅이 되였다. 지금 아저씨는 로동자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황해 제철소 부지배인으로 일하신다.

분단 위원장이 된 나의 결의

나는 이번에 영예롭게도 분단 위원장이 되였습니다.

우리 분단 동무들은 모두가 일제이 손을 들어 나를 분단 위원으로 선거했고 첫 분단 위원회에서 분단 위원장으로 되였습니다. 그래 나는 나를 그처럼 믿어 주는 분단 동무들을 위해 힘껏 일해서 훌륭한 분단을 만들어 보자고 새 결심을 다졌습니다.

지난 해도 나는 분단 위원장으로 사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분단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이 막 부끄럽습니다.

나는 지난 해 황주 장사 중학교에서 새로 전학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학해 온지 얼마 안되여 위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내가 그전 학교에서 단 위원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를 분단 위원으로 선거하고 분단 위원장을 시켰습니다.

그 때 나는 새로운 동무들과 함께 분단을 멋있게 꾸려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욕심 뿐이였지 막상 하자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였어요. 글쎄 새 학년도 분단 사업을 잘 하자고 분단 총회를 한지 며칠이 안가서 김 만근, 김 태화 동무랑 몇몇 동무들이 쩍하면 지각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밸이 나는 김에 동무들 앞에서 그들을 막 비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빈정대는 말투로 《잘못했수다.》하고는 그후부터 내가 잘못하는 일만을 끄집어 들고 비웃고 시비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분단 위원들이나 열성자들 한테서 더러 비판을 받은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다니며 점점 더 말썽을 부렸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하던지 그들을 고쳐 주자고 모임때마다 내놓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들은 나를 더 멀리 했습니다. 나는 분단 사업을 해나가기가 괴로왔습니다.

어떤 때는 선생님이 꾸중을 해주시면 좀 낳아지지 않을가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선생님을 찾아 가 이야기하군 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이야기 한 눈치를 챈 그들은 더 야단했습니다.

이때 마침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 회의 결정 내용과 새로운 소년단 규정을 배우게 되였습니다. 나는 이 결정 내용을 배우며 동무들과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는 사이에 지난날 내가 하던 사업 방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차차 깨닫게 됐습니다.

분단 사업이 잘 되려면 우선 분단 위원들이 자기 일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때에 분단 사업을 계획하고 총화하며 모든 사업을 분단 위원들과 그리고 분단의 모든 동무들과 의논해서 해야 하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위원들은 동무들의 친근한 동무가 되여야 하며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제일 걱정이 되던 만근이 문제를 놓고 분단 위원들과 같이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만근이와 가까운 동무들과도 의논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였습니다.

알고 보니 만근이는 지난날 분단의 말썽'군이 였지만 단 위원회의 도움까지 받아 그래도 그전에 비해서는 퍽 좋아졌던 것입니다.

특히 새학년도에 들어서면서 그는 새로운 분단 위원장과 함께 자기도 분단 사업에 열성을 내겠다고까지 결심하고 있였다는 것이였습니다. 그 때 지각한 것도 어머니가 앓아서 학교에 못 오겠다는 김 세운 동무네 집'일을 도와 주고 같이 오느라고 늦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정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지각했다고 비판부터 했으니 되겠어요. 그는 자기를 지난날처럼 여기고 알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였습니다.

나는 일을 이렇게 서틀게 해놓고도 분단 동무들이 말을 듣지 않아 분단 사업이 잘 안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동무들과 의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꾸중을 해달라고 분단 지도원 선생님부터 찾아 갔으니 되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였습니까.

그 후부터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 회의 결정에서 분단 사업 방법을 더 배우고 남의 경험을 본 받아서 분단 동무들의 앞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만근이 한테도 내가 지난날 만근이의 마음을 알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그에게 나의 부족점도 이야기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나는 그와 가깝게 지내면서 그가 힘들어하는 일을 힘껏 도와 주었습니다.

지금은 만근이하고도 퍽 친한 사이고 만근이도 분단 사업에 열성입니다.

분단에는 말'썽군이라군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안계시면 모든 일을 자신있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 사업을 제때에 계획하고 총화하고 동무들과 의논하는 데서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 새롭게 분단 위원장 사업을 시작하는 나는 지도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을 더욱 깊이 학습하고 다른 분단 열성자들의 사업 경험도 열심히 배우면서 모든 일을 자신있게 하는 떳떳한 분단 위원장으로 되기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분단 위원들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분단 동무들과도 더욱 따뜻하게 가깝게 지내면서 분단 동무들의 요구와 의견을 제때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황북 송림시 제 3중학교 단
제 10분단 위원장 림 성세

덕수의 두 일기장

글 최죽산　　　그림 리영근

숙제를 마치고 누운 평남 강동군 하리 중학교 제 3학년 2반 박 덕수는 오늘 낮에 있은 기쁨으로 하여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덕수가 뒤척거리고 있을 때 아래'방에서는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주고 받는 말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엄마! 오빤 례절과 도덕을 잘 지킨다고 오늘 소년단 모임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군 민청 위원장 선생님 곁에까지 가 앉았었구요.》, 《그래?!》 기쁨에 찬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끔 아버지의 툭한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마냥 뛰던 덕수의 가슴은 더욱 높이 뛰였습니다.

이윽고 무엇을 생각 하였던지 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꽂이에서 두툼한 공책을 꺼냈습니다. 덕수는 오늘의 일기를 쓰지 않고 누웠던 것입니다. 덕수는 금년까지 두해나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하여 덕수에게는 두개의 일기 책이 있는 것입니다. 두 일기 책은 항상 책꽂이에 어깨나란이 꽂혀 있었습니다.

덕수가 일기 책 뚜껑을 번졌을 때 그것은 작년에 쓴 일기 였습니다. 기쁨으로 상기된 덕수는 그만 작년에 쓰던 일기책을 꺼냈던 것입니다. 그는 한 장 두 장 번지며 어제'날의 자기를 그려 보며 기뻐도 하며 나무람도 하면서 읽었습니다.

1959년 8월 ×일

《오늘 분단 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동무를 사랑하고 웃어른을 존경하며 례절에 밝고 공중 도덕을 잘 지킬 것을 의논했다. 그런데 하필 분단 위원장의 보고에 내 이름이 오른다는 일은 정말 모를 일이다. 수도 꼭지에 약간 입을 대고 물을 마신 일이 어쨌다구 그러는지? 공중 도덕이라고 별거를 다 가지고 시비를 거는구나 그까짓것쯤 가지고 공중 위생 도덕이니, 뭐니하고…》 여기까지를 읽고 난 덕수는 정말 자기가 철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몇장을 넘겼습니다.

10월 ×일

《…경식이는 내 곁에 앉아 영화를 구경했다. 경식이는 어디서 가져 왔는지 몇알의 밤을 나에게 주는 것이였다. 우리가 밤 깨무는 소리에 곁에 앉은 동무들이 의아스럽게 돌려다 보군하였다. 모두 나무람하는 눈치였다. 단 지도원 선생님도 보시는 것 같았다. 경식이와 나는 영화가 끝나자 이어 밖으로 뛰여 나왔다. 그 때 경식의 앞에 앉았던 3학년 누나가 밤 껍질을 줏는 것을 본 나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는 것 같았다…》.

12월 × 일

오늘 일은 아무도 모를 터인데 어머니가 알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괴이한 일이다. 비록 뻐스 차장 누나에게서 꾸중은 들었지만… 어머니는 나를 몹시 꾸중하셨다…》

덕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슴뻑이면서 그날 있은 일을 더듬어 보는 것이였습니다. 읍 서점에 그림 이야기 책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덕수와 원길이는 거의 달음박질로 읍으로 갔습니다. 책을 산 그들이 뻐스 정류소까지 왔을 때는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새치기를 할 것을 《약속》한 그들은 슬쩍 손님들 틈에 끼여 먼저 탔던 것입니다. 이것을 덕수네 이웃집 할머니가 보았던 것입니다.

덕수는 더욱 부끄러워 왔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어렸을 때 례절이 밝은 소년으로 마을에서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웃 사람에게는 아침에 만나서도 인사하고 낮에 또다시 만나서도 인사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원수님의 어린 시절 처럼 공부하며 생활하겠다는 나는 어떠했는가?

덕수는 자기를 더듬어 보는 것이였습니다. 대추'골 할아버지를 보고도 인사 안하던 일, 길'가에 함부로 침을 뱉은 일, 인민반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길 가운데서 공 차던 일, 공원 의자에 들어 누워 책 보던 일들과 《공부도 잘 하는 덕수가 인젠 례절 밝고 공중 도덕만 잘 지킨다면 훌륭한 소년단원이 될 수 있겠는데…》라고 늘상 타 이르시던 선생님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일기 책 뚜껑을 덮은 덕수는 너무나도 마음이 저피어 부끄러워 나기까지했습니다.

덕수는 금년 몇 달 동안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 회의에서 개정된 《조선 소년단 규정》을 토의 하면서부터 꼭 공부도 잘 하고 공중 도덕도 잘 지키는 모범 소년단원이 될 것을 동무들 앞에서 맹세하고 새 책에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였습니다. 덕수는 몇장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1960년 6월 ×일

저녁 산보로 공원에 갔을 때였다. 유치원 동생들이 손곱놀이 하던 곳에 종이 쪼박지들과 나무 쪼각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의자 우는 신 발'자국으로 얼룩졌다. 내가 종이와 나무 쪼각들을 주어 휴지통에 넣고 손 수건으로 의자를 닦았을 때 유치원 동생들이 또 몰려 왔다. 동생들에게 공원에서 어떻게 놀아야 된다는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 하였더니 그들은 《잘못 했습니다》하고 재롱스럽게 허리를 굽히고는 달아나는 것이였다….

7월 ×일

오늘 나는 선생님과 분단 동무들에게서 지각을 안하던 내가 지각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나는 그 아주머니를 위해 땀을 흘렸지만…. 그러나 어쨌던 지각을 한 내가 책임을 져야지…

7월 ×일

오늘 분단 동무들은 며칠 전에 지각했던 사연을 알았는지 퍽 미안한듯 말했다. 《넌 그런 일이 있은 걸 왜 분단에 얘기 하질 않았니? 공연히 나무람 했구나》 선생님도 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두리며 칭찬하셨다. 그 때 난 얼나마 기뻤던가! 벽보에는 슬기로운 아동 혁명 단원들 처럼 생활하며

공부하는 덕수 동무》라고 큼직하게 쓴 글까지 나붙였다.

덕수는 이날의 일기를 읽을 수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덕수가 아침 일찌기 읍으로 갔다 올때였습니다. 빠스칸에서 얻은 작은 보'짐의 주인을 찾아 드렸을 때 보'짐을 잃었던 아주머니는 너무나도 감격하여 덕수를 꽉 껴 안기까지했습니다.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을 찾아 온 아주머니는 국가의 돈 70원을 잃었다 찾은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8월 20일

종태의 어머니는 저녁에 새 운동화를 사가지고 왔었다. 《덕수처럼 아래'동생을 귀엽게 여기는 애가 또 어데 있겠수》하며 어머니에게 새 신을 내놓았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리 둥절하여 영문을 몰라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 대로 이야기했다….

일은 이렇게 된 것이였습니다. 지난 여름 어느날이였습니다. 비는 저녁에 잡아 들면서 더욱 쏟아졌습니다. 덕수는 개굴을 건너지 못해 서성거리는 인민반 동생들을 하나하나 업어 건넜습니다. 덕수의 책보와 신발까지 쥔 종태는 무서워 움칠거리다가 자기 신과 덕수의 신을 물에 떨어트렸던 것입니다.

9월 30일

오늘 단 속보에는 어제 삐걱거리는 공원 의자에 못을 박은 나를 칭찬하였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내가 방에 들어 섰을 때 웬 할머니가 《교장 선생님 이애 올시다》하며 나의 손목을 꽉 쥐였다. 난 그 할머니가 학교까지 찾아 오리라곤 생각지 못하였다. 20리, 길이나 무거운 보'짐을 들어다 올린 일을 잊지 못해 찾아 오셨다는 것이였다.

일기장에서 눈을 뗀 덕수는 혁명 선배들처럼 살리라고 몇번이고 다짐하고도 그렇지 못했던 2학년 때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하면서 례절 없고 공중 도덕을 지키지 않던 지난 날을 곰곰히 돌이켜 보며 지금의 자기를 그려 보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단지 소년단원의 의무를 충실히 지켰을 뿐이다. 모든 동무들이 소년단원의 의무만 훌륭히 지킨다면 누구나 례절 바른 동무가될 것이다》

오늘의 기쁨을 적어 가는 덕수의 가슴은 한없는 자랑으로 울렁 거렸습니다.

동요 어떻게 청소 당번 없어 졌나?

해'님보다 더 일찍이 와
　　비를 들고 나서면
어느 새 꼬마 동무들
　　물바께쯔 들고 와요

다박머리 미소하며
　　다른 동무 또 나와
꽃병에 꽂은 꽃
　　향기도 그윽해요

명랑한 동무들
　　우리반 동무들
먼지하나 떨어질세라
　　조심조심 걸으며
누구하나 종이 검불
　　떨구는 일 없어요

명랑한 동무들
　　우리반 동무들!
서로서로 도와서
　　청소 당번 없앴지요

평남 증산군 석다 중학교
3학년 김 순자

소년단원—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척척할아버지—오냐 공부들 잘 하느냐?

영철—저희들은 화학에 대해 묻고 싶어 왔어요. 우리 학교 크루쇼크에서는 《꼬마 종이 공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볼가하여 물으려 왔습니다.

척척할아버지—허허…거 기특한걸. 종이를 만들었단 말이지 그래 그것은 무슨 현상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지 아느냐?

창남— 화학적 현상이지요

척척할아버지—허허… 잘 아는구만… 그러면 화학 현상을 리용한 공업을 무엇이라고 하지?

영순—화학 공업입니다.

척척할아버지—그렇지. 그런데 우리 나라 화학 공업이 인민 경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느냐?

창남—제가 대답하겠어요. 우리 나라 화학 공업은 알곡을 많이 내기 위한 화학 비료와 농약, 인민들의 보건을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건설에 쓰는 쎄멘트도 만들어 내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 큰 역할을 놀고 있습니다.

영철—그리고 양'재물, 비누, 비단, 기름, 물'감, 술, 과자도 만들고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척척할아버지—잘들 대답하였다.

김 일성 원수님은 8. 15 해방 15주년 경축 보고에서 앞으로 7개년 계획의 광활한 전망을 펼쳐 놓으시면서 인민 경제에서 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해야 하며 특히 기계화, 자동화와 함께 화학화할데 대하여 강조 하시였단다. 알겠니?

영순—그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화학화란 것은 무엇입니까?

척척할아버지—화학화… 이를테면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종이 공장도 화학화이지, 또 흥남에서 산더미같이 나오는 류안, 질안 비료, 청진에서 나오는 인조 섬유도 다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화학화라고 하지.

그뿐인가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없는 것 부족한 것은 우리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원료로써 말들어 내라고 하셨는데 그러자면 공업에서 화학화가 중요하다. 가령 우리 나라에서 목화에서 나는 섬유가 부족한데 화학적 방법으로 나무에서 인조 섬유를 뽑고 돌에서 합성 섬유를 얻는다거나 무연탄에서 인조 고무를 만들어 내며, 합성 수지로 좋은 일용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영철—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합성 섬유란 무엇입니까?

척척할아버지—응…그럼 너희들 섬유란 무엇인지 아느냐?

창남—예 제가 말하겠어요. 우리들의 옷감을 만드는 원료이지요. 식물이 주는 솜과 삼이 있고 동물이 만들어 주는 것도 있지요. 누에가 번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으로 토해 놓은 것이 명주실이고 양이 추위를 막기 위해 입은 옷이 양털이지요. 이것이 다 섬유입니다.

척척할아버지—옳지, 잘 대답했다. 그런 것은 자연이 주었으니 자연 섬유라고 한단다. 지금 우리 나라 청진 방적 공장에서는 나무로부터 팔프를 만들고 이것을 약

에 녹여 실을 뽑는다. 이 신기한 일은 누에도 양도 하지 못한다. 사람이 이런 훌륭한 섬유를 만들었단다.

그러므로 인조 섬유라고 부른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힘으로 이런 섬유를 만들가? 그것은 나무에 있는 섬유질을 화학의 힘으로 만들었다. 때문에 화학 섬유라고 한단다. 화학 섬유에는 또 합성 섬유가 있다. 우리 나라 학자, 기술자, 로동자 아저씨들은 섬유질이 전연 없는 돌에서 자연이 주지 못하는 우수한 성질을 가지는 비날론, 나일론, 니트론 등 섬유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것을 합성 섬유라고 한다.

영순—비날론은 어떤 것인가 말하여 주십시요.

척척할아버지—오냐, 그래 말하지. 비날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 학자인 리 승기 박사께서 벌써 1939년에 돌에서부터 만들어 내는 그 리치를 발명하였는데 면직보다 비할바 없이 아름답고 또 3~4배나 더 질기고 값이 눅단다.

비날론에 스프나 양털을 섞어 너희들이 쓸 여러 가지 고급 외투지, 양복지, 모포를 짜게 되고 영순에게 필요한 내의와 긴 양말도 만들 수 있지. 실이 고울 뿐만 아니라 물색도 잘 들고 해'볕에 날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입을 고운 색갈의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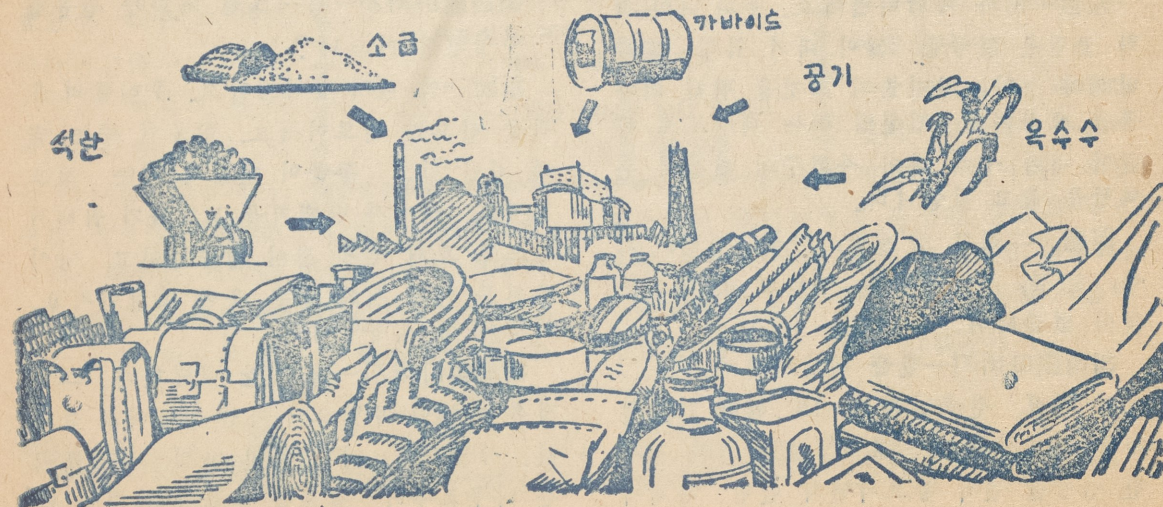
영순—아이 참 좋아 그뿐인가요?

척척할아버지—왜 그것 뿐일가 비날론은 물에 썩지도 않고 좀도 안먹고 여러 가지 약에도 잘 견딘다. 앞으로 너희들이 비날론 수영복을 입고 헤염치게 될게고 여름 야영 때는 비날론 천막 아래서 잠을 자게 될 게다. 어부들은 비날론으로 만든 바'줄과 그물로 고기를 잡게될 게다. 그래 지금 본궁에서는 로동자들이 당의 부름에 따라 명년 5.1절까지 1만 톤, 명년 말까지에는 2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비날론 공장을 건설하고 있단다. 명년부터는 비날론이 쏟아져 나올텐데 그것으로 1억 5천만 메터의 천을 짜게 된다.

그렇게 되면 7개년 계획의 첫 3 년동안에 잘 3억메터의 절반 이상을 해결하게 된다.

이 얼마나 굉장하냐!

영순—야 참 굉장하지!

척척할아버지—김 일성 원수님은 《비날론 공장의 제 1계단 공사를 명년 5.1절까지 끝낸다는 것은 곧 우리가 7개년 계획의 첫해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하나의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으로 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러한 성과

는 오직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온갖 배려를 다하는 우리 당과 정부의 옳은 시책과 전체 근로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이 있기 때문이다.

영철—할아버지, 합성 수지란 어떤 것입니까?

척척할아버지—합성 수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궁에는 비날론 공장과 카바이트에서 폴리 염화 비닐을 만드는 공장이 이미 건설 되였단다. 이 공장에서는 2천만 벌의 비옷을 만들 수 있는 6천톤의 폴리 염화 비닐을 해 마다 만들어 인민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것이 합성 수지의 하나이란다. 송진과 같이 뜨거우면 엿처럼 늘어나나 식히면 굳어지는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수지라고 한다. 폴리 염화 비닐에는 연한 것과 굳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연한 것은 부드럽고 탄성이 있고 질리고 아름답다. 앞으로 이 폴리 염화 비닐로 허리띠, 신발, 핸드백, 트렁크도 만들고 시계줄, 구럭, 그물도 만든다. 물이 새지 않고 물에서 썩지 않고 견디므로 비옷, 책상보, 방수포, 바'줄 천막, 포대 등을 만든다. 굳은 것은 금속, 나무, 고무 대신에 쓰며 비누갑, 치솔갑, 치솔'대, 빗, 연필 갑을 만들어 내며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건을 만들게 될게다. 또 폴리 염화 . 비닐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전화'줄을 비롯하여 기타 전기 공업에도 많이 쓰인다. 그뿐이 아니지. 연한 폴리 염화 비닐은 여러 종류의 화학 약품에도 잘 견디므로 화학 공업에서도 많이 쓰인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의 화학화는 7개년 계획 기간에 활짝 꽃피게 된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천리마 시대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단다.

영철—할아버지 많은 새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척척할아버지—오냐 열심히 공부하여 앞으로 나라의 훌륭한 과학자 기술자가 되거라.

작문

우리 협동 마을

오늘은 유달리 날씨가 맑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에는 구름 한점 보이지 않고 다만 강남으로 가려는 제비떼들이 노래를 부르며 자유로이 날아 돕니다.

동해의 푸른 물은 어느 때나 우리를 부르며, 먼 바다에서는 고기잡이 나가선 어부들의 흥겨운 그물 당기는 소리가 울려 옵니다.

여기에 우리 조합 마을—경포가 있습니다.

무연한 벌에서는 황금 나락 가득 실은 자동차가 분주히 탈곡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더 빨리 탈곡하여 좋은 낟알로 현물세를 빨리 내고 올해에도 더 많은 곡식을 수매시키자는 결의에 모두다 구슬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뜨락또르로 날라들인 벼'단을 탈곡장으로 나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력 탈곡기로 벼를 훑는 사람도 있고 벼'짚을 묶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덧 탈곡장에는 누런 황금산이 이루어집니다.

마을 뒤'동산 과수원에서도 과수반 누나들이 사과 따며 부르는 노래가 흥겨웁게 들려 옵니다. 올해에도 사과 나무에는 주렁주렁 사과들이 가지가 휘여지도록 열렸지요. 누나들의 흥겨운 노래 소리는 어느덧 탈곡장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래와 어울려 풍년가로 넘어 갑니다.

학교에서 돌아 오는 우리들도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을 따라 모두 목청껏 노래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이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신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함남도 홍원군 경포 중학교 단
제 5분단 김 종삼

미제는 나가라!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리 승만이가 쫓겨 나자 미제는 또다시 제놈들의 졸개인 장면이란 놈을 내세워 자기네 식민지 통치를 계속해 보려고 미쳐 나뛰고 있다.

장면이란 놈은 괴뢰 정부의 《국무 총리》란 자리에 들어 앉자 남조선에 그 어떤 《행복한 사회를 건설한다》느니 《실업자들을 없앤다》느니 떠벌려댔다. 이것은 인민들을 속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일터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그리고 살래야 살 길이 없고 견딜래야 견딜 길이 없어 한많은 남조선 세상을 저주하면서 자살하는 사람과, 굶어 죽는 사람이 더욱 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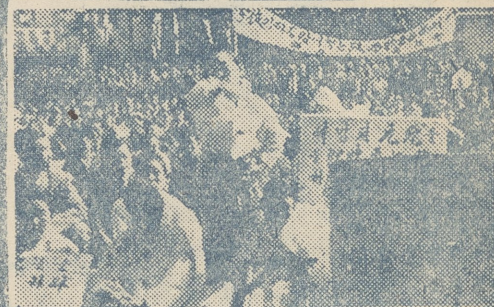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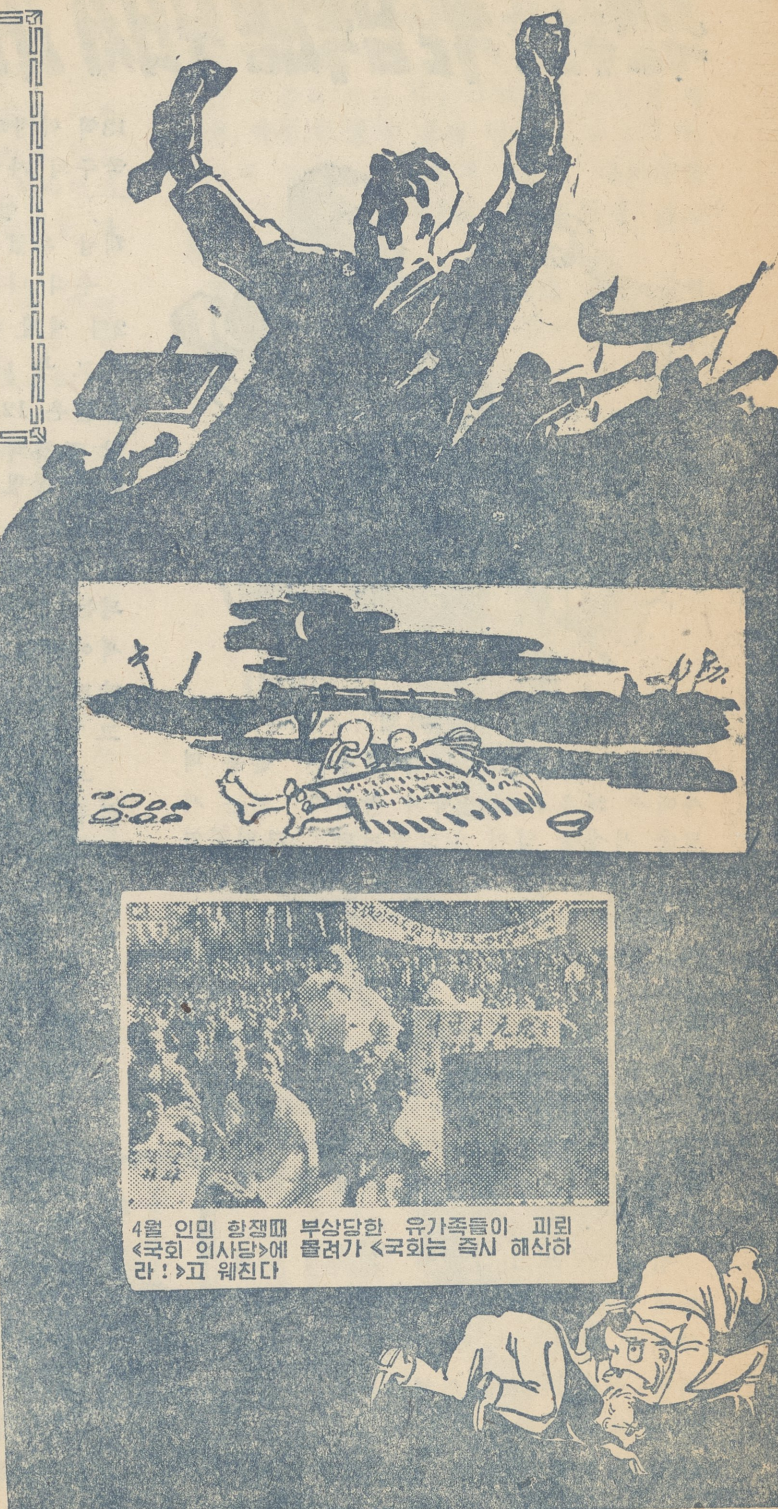
금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서울에서만도 이렇게 죽은 사람의 수는 35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장면이란 놈은 인민들을 구원할 생각은 고사하고 인민들을 더욱 더 착취하며 리 승만이 하던 짓 그대로 동포들을 외국 농장주들에게 노예로 팔아 먹기 위해 눈이 뒤집혀 날뛰고 있다.

때문에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계속 미제와 장면 도당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다.

(10월 11일에도 서울에서는 미제와 장면 도당을 반대하는 1만명의 시위 투쟁이 있었다. (사진))

《의사당》 정문을 까부시고 들어가 《의장단석》을 점령하고 《국회 의원들은 모두 의사당에서 물러가라고 웨치는 4월 인민 항쟁때 부상당한 청년들

서울 시민들은 무장 경찰대를 박차고 괴뢰 《국회 의사당》 앞으로 쳐들어 갔다.

4월 인민 항쟁때 부상당한 유가족들이 괴뢰 《국회 의사당》에 몰려가 《국회는 즉시 해산하라!》고 웨친다

식민주의는 썩은 담벽처럼 무너져 가고 있다

글 박순 그림 오락삼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압박과 착취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발밑에서 노예 살이를 하던 지구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도 쏘련 인민처럼 싸워 나라를 찾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게하였고 또 그를 위해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자기 나라를 찾겠다는 식민지 인민들의 투쟁은 급격하게 발전하였습니다.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하여 아세아에서 우리 조선 인민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노예 살이로부터 해방되여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들과 월남 인민들도 자기 나라를 찾고 독립을 선포하였지요.

그리하여 2차 대전 때까지만해도 13억 이상의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이 제국주의 자들의 압박 밑에 있었는데 오늘은 얼마 남지 않고 거의 모두가 해방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해방되기전인 1945년전(제2차 세계 대전전)만해도 지구상에는 쏘련, 몽고 두 나라 밖에 없던 사회주의 나라가 오늘은 12개로 되였으며, 인도, 아랍 련합 공화국 등 수많은 이전 식민지 나라들이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영국, 불란서 등 식민주의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타격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식민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거의 쫓겨 나서 아프리카에 매여 달려 죽어가는 마지막 목숨을 이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콩고에서 미제와 벨기 식민주의자들은 갓 독립한 콩고를 다시 빼앗으려고 제놈들의 앞잡이 쏨베와 모부트란 놈을 시켜 콩고 사람들끼리 싸우게하고 그 틈을 타서 콩고에 기여 들려하고 있지만 콩고 인민들은 놈들을 반대해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알제리아를 빼앗아 내려고 80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벌써 6년간이나 싸우고 있지만 놈들은 알제리아 인민을 굴복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아프리카에 기여들기 시작한 미제 놈들은 지금 한편으로는 영국, 불란서, 벨기 등 기타 나라들을 시켜서 식민지 나라 인민들을 탄압하게 하고 다른 편으로는 《원조》해 주는 척하면서 이 나라들에 기여 들려고 갖은 술책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놈들은 아프리카의 땅 속에 많이 묻혀 있는 석유, 우라늄, 금, 금강석과 같은 귀중한 자원들을 모조리 뺏아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놈들은 아프리카에 들어 온 첫날부터 이를 반대해 나서는 아프리카 인민들을 압박 착취하고 멸살시키려고 갖은 만행을 다해 왔습니다.

벨기 식민주의자들은 콩고에 들어 온지 80여년 간에 콩고 인민들을 절반 이상이나 죽였답니다.

심지어 남아 련방이란 나라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백인보다 더 힘든 일을 하는데도 임금은 20분의 1도 못받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간다하더라도 《통행증》이라는 것이 없이는 마음 대로 나다니지도 못하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 인민들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사람들은 언제나 이와 같이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식민주의 놈들의 압박을 반대하여 일어나 피어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는……(전 의남 그림)

그리하여 그전에는 독립 국가라고는 하나도 없던 아프리카에 오늘은 24개의 독립 국가가 생겼습니다. 지난날 《암흑의 땅》이라고 불려 오던 아프리카에서 오늘은 새로운 아침 해'발이 붉게 비치고 있습니다.

아직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도 해방 투쟁의 불'길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길은 마치 수레 바퀴를 뒤로 돌릴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떠한 힘으로도 끌 수 없습니다.

새로 선거된 위원들은 일을 어떻게 나누어 할가요

김 성구

소년단은 소년들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준비시키는 소년들의 대중적 단체 입니다.

소년단의 주인은 소년단원 자신들이며 그들 속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곧 소년단원들 속에서 선거받은 위원들이지요.

위원들은 소년단원들 속에 소년단 규정을 잘 해설해 주고 그들이 자각적으로 움직이도록 가르쳐 주며 특히 김 일성 원수님께서 조직 지도하신 항일 무장 투쟁의 고귀한 혁명 정신과 아동 혁명단의 모범을 배우고 따르도록하는 일과 소년들이 학습을 잘 하고 로동을 즐기며 몸을 튼튼히하고 즐겁게 휴식하도록 하는 일 등을 잘 짜고 조직해야 합니다.

또한 조선 로동당의 정책을 잘 알고 실천하게 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돕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기차의 운전수와 같은 역할을 놀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위원들은 항상 소년단원들 속에 깊이 들어가 살아야 하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즐기며 누가 공부를 잘 하고 누가 공부에 게으른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또는 분단이 공부 잘 하고 규률 잘 지키는 집단으로 되게 하자면 무엇을 해결해야 하겠는가를 깊이 연구하며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위원들은 항상 단과 분단의 모든 사업을 서로 의논하고 실천할 방도를 세워야 합니다.

동무들은 《청년 공작원들에게 주신 그이의 말씀》이란 항일 빨찌산 회상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일'군들은 군중의 참된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역시 소년단원들의 가장 친근한 동무로, 나아가서는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여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일을 나누어 맡아 하면 좋을가요? 물론 매개 단과 분단의 실정은 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공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언제나 고정적으로 맡아하는 고정 분공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때 그때 맡는 림시적 분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고정 분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가요?

첫째로, 단 위원장이나 분단 위원장은 자기 단체 앞에 나서는 과업과 상급 단체가 주는 과업을 위원들과 의논하여 계획을 짜며 제때에 위원회와 총회를 가지며 계획과 총회 결정이 잘 실천되도록 분단과 반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는가를 알아 보며 잘된 것은 칭찬해 주고 잘못된 것은 다시 대책을 세워 주는 일을 조직해야 합니다.

또한 혁명 전통을 연구하는 일, 당 정책을 연구하는 일, 학습을 돕는 일, 체육 연예 써클 사업, 독서 사업, 《꼬마 완충기 계획》 활동, 위생 사업 등 모든 사업을 돌볼 책임을 집니다.

둘째로, 벽보 주필은 벽보 편집 위원회를 자주 가져 소년단원들 속에 들어 가서 어떤 벽보를 쓸 것인가? 어떤 것이 재미나며 어떤 것이 재미 없는가를 알아 보고 훌륭한 벽보를 내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벽보 주필이 혼자서 내는 일이 없도록하며 꼭 소년단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벽보는 오래 붙어 있지 않도록 자주 갈아 붙여야 합니다.

벽보 주필은 속보, 화보, 그림 및 사진 전람회도 조직하고 독보원들을 발동하여 신문 독보 사업도 활발히 조직해야 합니다.

세째로, 기수는 기'발을 들고만 다니는 사람이 되여서는 안됩니다.

기'발을 잘 보관하며 자기 대렬이 규률있게 움직이도록 항상 앞장 서야 합니다.

동시에 기수는 다른 위원들과 함께 앞으로 소년단에 들어 올 수 있는 어린 동생들을 교양 주어 입단 준비를 시키며 그를 소년단에 받아 들이며 분단 및 반을 조직하고 가르고하는 사업을 맡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위원들 속에서는 소년단 입단 준비를 돕는 일, 소년단원이 다른 단체로 가거나 다른 단체에서 온 동무들에게 소년단 생활에 대하여 알려 주는 일, 혁명 전통 연구 사업과 연구실을 운영 하는 일, 학과 학습과 《꼬마 완충기 계획》 활동을 조직하는 일, 연예 써클, 체육 사업 및 위생 사업 등 부문별로 나누어 맡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이 적은 분단 위원회들에서는 이것을 적당히 나누어 맡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때때로 맡는 분공에 대해 말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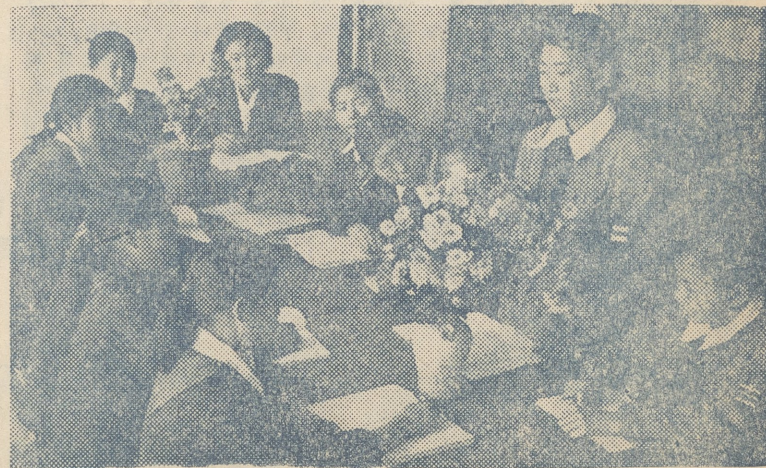
단과 분단, 반 사업을 진행하자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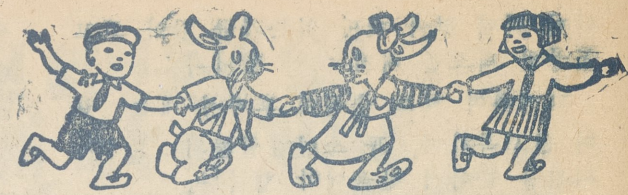
례를 들면 총회를 준비하며 진행할 때, 월 계획을 세울 때, 행군, 려행, 탐험, 답사, 입단 맹세를 위한 단 총회, 사열식 등을 조직할 때 그때 그때에 적당히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지요.

가령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 만세》라는 분단 총회를 가진다고 합시다.

이때 분단 위원장은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의 혁명 투사 아저씨에게 이야기 준비를 부탁하여 모셔 오는 일을, 위원 어느 동무는 어느 로력 영웅 아저씨를 찾아 가 과거 일제 시대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비참한 생활과 오늘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시대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 오는 일, 벽보 주필은 로동당이 걸어 온 15년과 당의 배려하에 행복하게 자라는 소년단원들의 생활과 남반부 소년들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벽보를 특별히 발간하는 일 등으로 나누어 맡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나눈다고 해서 그 동무의 취미와 능력을 보지 않고 또 본인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위원들이 모여 앉아 의논하고 잘 분공하며 일단 분공한 다음은 그가 잘 실천하도록 서로 도와 주며 맡은 동무들은 더욱 책임적으로 실천하는 등으로 전체 위원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튼튼한 집단으로 만들기에 힘써야 합니다.

해주시 사미 중학교 단 제 7분단 위원들은 항상 모여 앉아 분단 사업을 의논하고 분공한다

우리의 무선 통신

3,600 마리의 토끼

《소년단》 편집부 입니까?

예? 여기는 량강도 백암군 연암 중학교예요.
통신원 김 봉순이 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얼마 전에 커다란 토끼 우리를 일곱채나 새로 더 지었어요.

토끼들이 많이 늘어서 우리가 좁으니까요.

그래 새끼를 금방 낳을 토끼들을 새 집으로 이사 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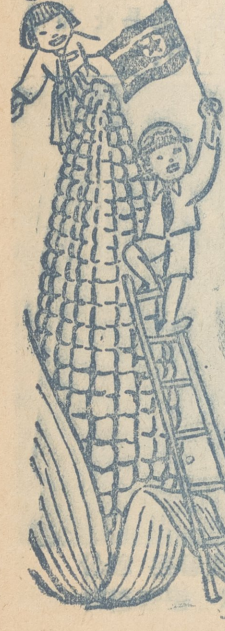
480 마리의 어미 토끼들이 따뜻하고 아담한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매일 몇십마리의 새끼를 낳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면 우리들은 모두 3,600 여 마리의 토끼를 길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토끼의 겨울 차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예? 추운 겨울에도 새끼를 낳는가구요? 여기는 매우 추운 곳이지만 겨울에도 아무 념려 없이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토끼 우리를 멋있게 지었습니다. 명년에는 올해 경험을 살려 보다 더 많은 토끼들을 길러 낼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우리 학교 실습지

여보세요, 예 평남 강동군 강동 중학교 통신원 김 원려입니다

금년 우리 학교 단에서는 《교마 완충기 계획》 활동을 통해 1,932 개의 수세미 오이를 땄어요.

크기가, 보통 60~70cm나 되지요.

그런데 리 종근, 리 복녀, 김 상환 동무들이 가꾼 것들은 78cm나 되는 것들도 있지요.

그 동무들은 어떻게 가꾸어서 그렇게 되였는가구요?

그 동무들은 매일 배운 지식을 실습지에 나가서 실습을 통해 익히면서 정성껏 가꾸었기 때문이지요.

예? 실습지에서 딴 호박 말입니까? 무게가 13kg이나 되는 것들이 50여 개나 있었지요.

인민반 동무들은 기뻐하며 지게에다 하나씩 지여 날랐습니다. 호박은 모두 561 개나 땄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들은 실습지에서 피마주를 855kg 해바라기를 195kg이나 땄어요,

단 위원회에서는 《교마 완충기 계획》 활동에서 모범적인 분단들과 동무들을 표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둔 수확도 많지만 배운 지식도 많아요.

예? 황해남도 신천군 월성 중학교 통신원 리 종익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마을 협동 조합과 함께 우리 학교 실습지에도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길이가 61cm, 직경 이 93cm씩이나 되는 옥수수를 거두었습니다.

한이삭의 무게가 1kg나 돼요.

굉장하다구요? 예 그래서 실습지 100평에서 거둔 것이 모두 480kg나 돼요.

어떻게 이런 수확을 거둘 수 있었는가구요? 우리는 이른 봄부터 《백색 마치종》으로 좋은 종자를 골랐습니다.

우리들은 학습에서 배운대로 실습지를 30cm의 깊이로 갈고 거름을 많이 주고 심었습니다. 씨 솎음도 제때에 해주고 김은 다섯 번이나 매주었습니다. 그 후 개꼬리가 나오고 꽃이 피였을 때는 식물과에서 배운 것처럼 이랑 마다 새끼 줄을 걸고 흔들어 인공 보충 수분도 해 주었지요.

올해에 우리는 실습지에서 거둔 수확도 많지만 배운 지식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 실습지 소식을 듣고 오셨던 조합 아저씨들은 《너희들이 배우면서 일한 보람이 대단하구나》하고 칭찬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 소년단원 동무들은 명년에는 이보다 더 좋은 수확을 거두겠다고들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560kg의 피마주

여보세요, 《소년단》 편집부입니까? 여기는 황해북도 송림시 제 3중 학교 단입니다. 예? 저는 단위원 림 성일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특히 피마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봄에 소년단원 1명이 피마주 2포기 이상을 심기로 했었습니다.

그래 우리 학교 소년 단원들은 누구나 이것을 어김 없이 실천했습니다. 길'가에도 심고 운동장 둘레에도 심고 빈 터에도 심었습니다.

며칠전에 모두 거두어 들여 보니까 560kg나 됩니다. 우리는 래년엔 1 톤을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이 심자고 약속했습니다.

아래의 작문은 8.15 해방 15주년 기념 아동 방송 현상 문예 작품 모집에서 가작으로 입선된 것이다.

우리 마을

정거장 옆에 깎아 세운듯한 그리 높지 않은 절벽이 있고 그 우에 아름다운 소나무가 사시절 푸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차에서 내리는 손님들의 휴식터로도 리용됩니다.

이 절벽우에 올라 앉아 마을의 전경을 내려다 볼때에는 저절로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마을 복판으로 관개수로가 뻗어 나리고 논과 밭에 오곡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농업 기술 학교와 중학교 마당에서 학생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소학교에조차 부자집 아이들 얼마 밖에는 다니지 못했던 이 마을에 많은 대학생 형님들이 있고 중학교와 기술 학교에서 누구나 공부합니다.

병원에서는 무상으로 마을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탁아소에서는 귀여운 동생들이 뛰놀며 노래부르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기계로 일을 하며 뜨락또르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뜨락또르가 퇴비를 나르고 있습니다.

이 기계들을 볼때마다 나는 등'짐에 허리가 휘셨다는 할아버지의 바위처럼 굳어진 손이 생각납니다.

일제 시대에 지주놈들 앞에서 천대 받고 압박 받던 농민들이 오늘은 땅의 주인이 되여 기계로 농사를 짓습니다.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이 모두다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은혜인줄 누가 모르랴.

싱싱 자라는 논밭에서 풍년의 바람이 슬슬 불어 옵니다.

마을 복판에 있는 스피카에서는 노래와 새 소식이 끊임 없이 흘러 나옵니다. 이러한 자유스럽고 행복한 오늘을 위하여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들이 15년 간이나 긴 세월을 두고 일제와 싸웠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에서 영웅적으로 싸우신 아저씨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왜놈들과 그 앞잡이 지주놈들을 반대해 일어나 싸운 단천 농민 폭동에 참가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구락부 앞 마당에는 《보천보의 불'길》을 그린 목화판이 마을 사람들의 눈을 끕니다. 우리는 이 그림 앞에서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처럼 그렇게 참으로 자기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미국 강도들과 리 승만 도당이 전쟁의 불을 이르켰을 때 우리 아버지와 형님들은 당의 부름 받들고 전선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 싸워 이겼습니다.

다리가 파괴되였을 때에는 다리를 복구하고 전선에 식량과 군수 물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영원히 흐를 남대천 물이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씨인양 맑게 푸르게 힘차게 동해에로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우리 마을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날이 억세게 자라나는 우리 마을을 자랑합니다.

함남 단천군 련대 중학교
1학년 최 청천

작문

우리 마을에 대하여

최 청천 동무는 자기 고향에 대한 사랑과 자랑을 가지고 이 작문을 썼다.

—사시절 푸르게 자라고 있는 소나무가 있는 절벽 우에서 바라보는 마을의 전경—거기엔 전에는 볼 수 없던 관개수로가 뻗어 억년 흉년을 모르는 사회주의 농촌이 펼쳐져 있으며 논밭에는 오곡이 물결치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그것도 부자집 아이들이래야 다닐 수 있던 소학교만이 있었으나 오늘은 탁아소, 유치원으로 부터 시작하여 인민학교, 중학교, 농업 기술학교에 이르기 까지 각급 학교가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으며 여기서는 가난하던 농민의 아들 딸들이 노래 부르며 뛰놀며 배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은 일제시대 같으면 꿈도 못 꾸던 대학을 졸업한 형님들까지 가지고 있다.

마을에 설치된 병원에서는 어떠한가! 아무리 중한 병도 돈을 받지 않고 보아 주며 치료해 주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 사업을 철처히 해준다.

최 청천 동무는 여기에 끄치지 않고 가을도, 밭갈이도, 파종도 다 기계로 해 제끼는 기계화되여 가는 농촌 모습을 등'짐지기에 등이 굽고 손이 바위처럼 굳어진 할아버지와 대비하여 보여준다. 다음은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주신 김 일성 원수님과 조선 로동당에 대하여 우리 당의 혁명 전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미제와 리승만역도의 침략 전쟁을 반대하여 싸운 아버지와 형님들의 마을을 지키기 위한 슬기로운 애국적 투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글에는 우리 조국의 어제와 오늘이 대비되여 묘사되고 있으며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이 이룩하여 놓은 혁명 전통을 이어 받아 그 분들처럼 조국을 사랑하며 고난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사상과, 행복한 조국의 품속에서 자라는 긍지가 꾸김살 없이 묘사되고 있다.

이 작품의 우점은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속에서 날로 늘어 가는 행복을 그대로 꾸밈 없이 소박한 감정으로 자기가 잘 아는 사실에 대하여 묘사한 데 있으며 애정을 가지고 쓴데 있다고 본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즉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멋대로 지어서는 쓸 수 없으며 애정이 없이 메마른 감정으로는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이 작품은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은 우점이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부족점들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이 글에서 작자는 적은 그릇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지나친 욕심을 부렸다.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 혁명과 기술 혁명, 그리고 혁명 투사에 대한 이야기, 지난 조국 해방 전쟁시기 이야기 등을 통하여 다 이야기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마을에 견학온 사람들 앞에서 하는 《안내원》의 《해설》 같은 감을 주게 되지 않을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문제 (농촌 기계화면 농촌 기계화에 대하여)를 깊이 파고 들어 이야기 하면서 나머지 문제들은 그 주제에 복종시킴으로써 작자가 이야기하려는 중심 문제를 두드러지게 묘사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읽는 사람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로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고 스치고 지나간 점들이다. 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그 어느 하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결과에 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부족점은 있으나 전반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이 작문은 많은 우점을 가지고 있다.

최 청천 동무가 앞으로 노력한다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기대한다.

(편집부)

그림을 어떻게 그릴가요?

림홍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지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되자면 처음부터 똑똑히 배워야 합니다.

그림은 조선화, 유화, 수채화, 크레온화, 목판화 등등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림을 배우는 동무들을 위해 연필로 그리는 그림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려 합니다.

연필로서는 풍경화(자연 풍경을 그리는 것) 인물화(사람을 그리는 것) 정물화(움직이지 않고 정지돼 있는 생명이 없는 물건을 그리는 것)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물화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만 말해 봅시다. 정물화로서는 주전자 단지, 컵, 과일, 책, 등 동무들이 많이 보고 항상 쓰고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보지도 못하던 이상한 물건이나 동무들의 생활과는 먼 것들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려는 것을 골은 다음에는 얼마나한 크기로 그리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놓지 말고 큼직한 물건을 한 두 개 놓고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색과 모양은 똑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 반대 되거나 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간격도 전체가 잘 어울리도록 자연스럽게 잡아 책상 우에라든가 적당한 높이의 상자 우에 놓습니다.

그리고 빛은 옆에서와 조금 우에서 조금 앞으로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정면에서 밝은 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거나 너무 뒤에서 받으면 그림자만 어둡게 보여 그리기 곤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받는 데와 그림자 지는 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직은 연필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그리려는 물건의 모양, 색 등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점을 찾아 내야 하지요.

그래서 그리려는 물건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합니다.

꽃 한 송이를 그리는 데도 아름다움이 어데 있는지도 모르고 보이는 대로 그려 놓는다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야 멋있구나!》하고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래오래 유심히 들여다 보면서 흰 도화지에 그 모양, 색, 빛, 그림자 등을 어떻게 그려 넣어 아름다움을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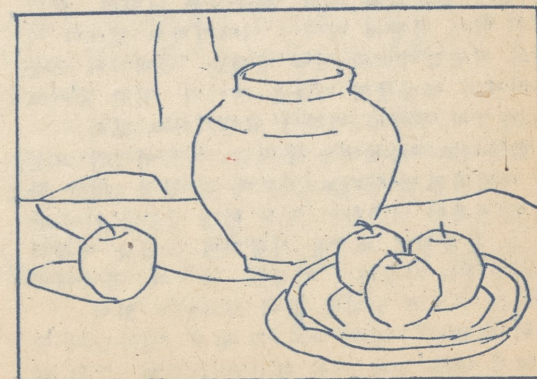



그림 1

이제는 연필을 들어도 좋습니다.

제일 먼저 그림 형태를 잡기 위한 테두리를 그립니다. (그림 1)

그러기 위해서 화면 전체를 본 다음 그 중심을 정하고 위치를 연필로 보일듯 말듯 하게 그어 놓습니다.

그런데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그려 들어나가다가는 너무 적어져서 화면이 텅 비는 때도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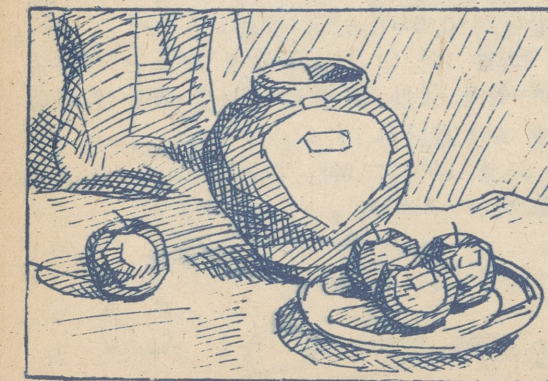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려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한 크기로 그리겠는가를 정하고 우선 큰 테두리부터 어렴푸시 그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2)

이렇게 크기와 위치가 정해지면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을 그려 들어 갑니다.

세밀하게 그린다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지나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선 하나를 긋는데도 들여다 보고 또 보면서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그려야 합니다. 잘 못된 선을 찾았을 때에는 서슴없이 정확한 선을 찾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고무로 지우지 않고 그리면 그림이 깨끗해 집니다.

이렇게 하여 처음부터 진실하게 그리는 습관을 길려야 합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잘 그려 놓아야만 색을 칠하기도 좋고 빛과 그림자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 2)

이제는 빛을 보고 그려야 합니다.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밝음과 어두움을 잘 알고 그려야 됩니다. (그림 3)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밝음과 어두움은 대체로 빛을 받는 밝은 부분, 절반만 받는 부분, 빛을 받지 않는 어두운 부분의 세단으로 나눕니다.

사각형의 상자일 때에는 이 세단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뿔이나 사과 같이 둥근 물체들은 어데서 어데까지가 밝고 어두운 부문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여러 번 그림을 그려 보는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연필을 쓰는 법을 알아 둡시다.

연필은 B라든가 2B, 3B, 4B라고 씌어져 있는 꿀벌 연필이 좋습니다.

좀 무르고 진한 색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필을 쓸 때에 너무 비벼 그리거나 문질려 그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나타 내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약하게 선을 써야 합니다.

그림 그리는 법이라해서 산수 문제처럼 2×2=4와 같이 꼭 같은 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소년단원 동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써만, 즉 그리고 또 그리는 데서만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 3)

오락 《100》으로 먼저 가기

수'자에 따라 자기 말을 옮기되 6각알에 나타난 수'자와 말이 서 있는 수'자에 기록된 기호 (+, −, ×,÷)가 가리켜주는 대로 암산하여 나온 답에 의하여 해당한 수'자대로 말을 옮겨야 한다. 례를 들어 그림 1의 판에서 수'자 8에 가법(+) 기호가 있는 지점에 자기 말이 있고 6각알을 굴려 4가 나타났다면 8에 4를 가하여 그의 답으로 되는 12의 지점에 말을 옮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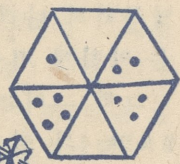
이와 같이 기호가 가'법(+)과 승법(×)일 때는 계속 100을 향해 말을 전진 시키며 감'법(−)과, 제법(÷)일 때는 뒤로 말을 후퇴 시킨다. 만약 6각알을 굴려 수가 없는 곳이 나오면 말을 움직이지 못한다.

※다른 방법으로서도 놀 수 있다. 6각알을 굴려서 얻은 해당한 수로 순서 있게 옮겨 놓되 화살표 있는 곳에 말이 정지될 때에는 화살이 향해진 방향으로 말을 옮긴다. 그러하여 100에 먼저 간 사람이 승리한다.

ㄱ. 노는 인원—2명(혹은 여러 사람이 두편으로 갈라서 놀 수 있다.)

ㄴ. 준비할 것—그림 1과 같은 판, 여섯 모난 알 1개(6면 중 4개의 면에는 1, 2, 3, 4의 수를 표시하고 나머지는 비운다.)

ㄷ. 노는 방법— 각을 굴려 나온 수'자(점수)에 해당하게 판에 표시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간단한 수놓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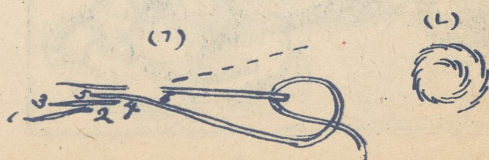
수놓이는 여러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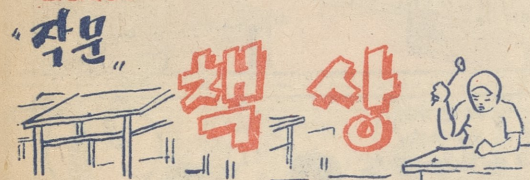
먼저 천(면직 또는 비단천)에다 꽃본을 그려 둥근 수틀에 메워 놓고 수실 또는 양말을 푼 실로 수놓아 봅시다. (다음 그림을 참고)

△ 감침수

감침수는 수놓이 중에 제일 흔히 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림 (ㄱ)에서와 같이 바늘을 뒤'천에서 1로 뽑아 2에 꽂고 3으로 뽑아 4, 5의 순서에 따라 놓아 갑니다. (바늘은 언제나 밖앗 쪽으로 꽂으며 뜨는 길이는 0.5~0.6cm 정도)

그림 1의 (ㄴ)은 둥글게 수놓는 방법이며 원을 돌아 갈 때에는 바늘 뜸을 짧게짧게 뜨면됩니다.

그림 1의 (ㄷ)의 꽃본을 그려 감침수를 놓아 보세요.

라 영학 동무와 김 익남 동무는 일본에서 고생하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따뜻한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 온 동무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민주 학원에서 행복하게 공부하면서 조국 앞날의 참된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래에 두 동무의 일기와 작문을 소개 합니다.

"작문" 책상

내가 공부하는 책상은 로동자 아저씨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책상은 내가 공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나의 친한 동무입니다.

그래서 나는 먹칠과 기름 칠을 하고 더 반들반들하게 닦았습니다.

만일 책상이 말을 할줄 안다면 《익남 동무 참 고마워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책상을 더 깨끗이 닦으며 못이 빠지면 제때에 못을 박겠습니다.

평남 순천 사범 부속 중학교
인민반 3학년 김 익남

"일기"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학교에서 돌아 오는 길에 한 아이가 도랑에 빠져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가엽다고 생각하면서 건져 주었다.

《야 너희 집이 어디냐?》하고 물었으나 어린 아이는 계속 울기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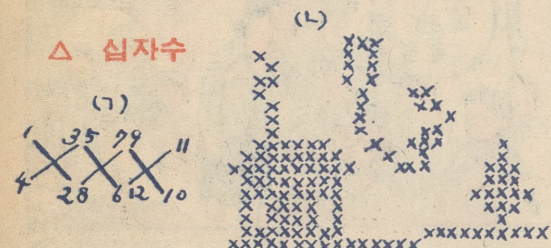
좀 있다가 아이의 어머니가 뛰여 왔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어머니는 나에게 물으셨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 오는 길에 도랑에 빠져 우는 것을 건져 주었습니다.》라고 말하니 어머니는 《착한 학생》이라고 칭찬하셨다.

1960년 10월 7일 목요일

평남 순천 사범 부속 중학교
인민반 3학년 라 영학

△ 십자수

십자수는 가장 간단하게 수놓아지며 아름답게 보입니다. 즉 그림 2의 (ㄱ)에서와 같이 1에서 2에 바늘을 꽂고 3에서 뽑아 4에 꽂습니다. 다음은 5, 6, 7, 8의 순서로 놓아 가는데 십자는 반드시 정방형 안에다 그리는 모양으로 놓아야 합니다.

※ 십자수를 놓기 위해서는 천의 씨실과 날실이 뚜렷이 나타나는 설핀 천을 골라 수놓읍시다.

그림 2의 (ㄴ)의 꽃본을 십자수로 놓아 앞치마를 만들어봅시다.

△ 씨알수

먼저 실을 굵은 것으로 놓으며 그림 3의 (ㄱ)에서와 같이 바늘을 천뒤 즉 1에서 뽑아 왼 손에 바늘을 잡고 오른 손으로 바늘에 실을 2~3회 감아 그 뒤로 바늘을 가만히 뽑으면 씨알이 놓아집니다.

그림 3의 (ㄷ)에서와 같은 꽃본을 씨알수로 수놓고 잎사귀는 감침수로 놓아 동생의 양복 가슴에 놓아 줍시다.

어린 기술자
원 광수 그림

얘! 난 이제 반 모임에 가야 해…
형! 나 산수 숙제 좀 대줘요.

어이! 련락 련락!

영남이. 어제 배운 도르레의 원리를 설명해 보시요!

저. 저?!..

형! 내 숙제도 좀 대 줄래?
순남아 숙제 공부 하자!

숙제는 제힘으로 해야해! 그렇지만 모르는것 대 줄게!
응!

숙제를 해온 사람 손 드시요
예!

영남이가 오늘은 공부를 잘 해 왔는걸!

영남아 놀러 가자!
숙제 마자 하고…

우리 영남이가 요샌 제법 셈이 들었구나! 동생의 공부도 잘 도와 줘라!
예!

거참 멋진데… 옳지! 이젠 한가지 만들어 갈수 있겠어

어머니! 이제 다 된 다음에 보세요!
넌 뭘 만드느라고 그러니?

?
?
됐어! 아?! 왜 이럴가?!

옳지 내 다시 한번 가 보고 올게

아하! 줄 감개에다 저런 나무통을 깎아 씌워야 겠는걸, 됐어!

이렇게 나무로 줄감개 통을 만들어 끼워야 겠는걸 몰랐거던

이젠 됐어. 자 짐을 실어 감는다!
아하! 멋진데 성공야 성공!

선생님 이거 영남이가 만들었습니다
옳지! 영남이가!

어린 기술자 영남 이의 모범을 따르자!
어린기술자 영남이의 모범을 따르자!
영남이는 대단한데 우리들도 배운 지식을 리용해 만들어 보자!

아래의 그림은 24개의 정방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24개의 정방형에 8개의 공을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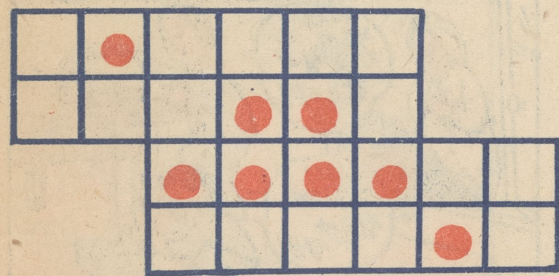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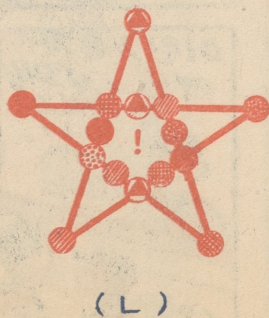
이 8개의 공을 세개의 정방형 (3개의 정방형이 한 조입니다)에 하나씩 차례 지게끔 나누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누어야 될가요.

《소년단》 8호와 9호의 현상 문제 답

그림 ㄱ (8호) ㄴ (9호)와 같습니다.

(ㄱ)　　　(ㄴ)

현상 문제 당선자 (8호)

평남 남포시 고령 중학교　채 광필
함남 단천군 련대 중학교　안 회숙
함남 대흥군 신청 중학교　안 종환
황북 곡산군 평암 중학교　박 춘필
황북 린산군 수현 중학교　김 봉식
황남 신천군 새날 중학교　김 순옥
평양 남산 공업 학교　한 정히
자강도 화평군 중흥 중학교　김 명룡
자강도 화평군 화평 중학교　김 만식
자강도 송원군 송원 중학교　정 춘옥
량강도 혜산시 혜명 중학교　김 학성
함북도 청진시 정산 중학교　박 인숙

현상 문제 당선자 (9호)

강원도 고성군 주둔 인민학교 주 운하
강원도 철원 중학교　장 산옥
평북 선천 초등 학원 최 성래
평북 향산군 상서 중학교　차 명화
함북 회령군 회령 중학교　윤 영춘
함북 화대군 양촌 중학교　김 창옥
함남 단천군 제 2 중학교　박 옥숙
함남 함흥시 마전 중학교　강 주종
평양 룡흥 중학교　김 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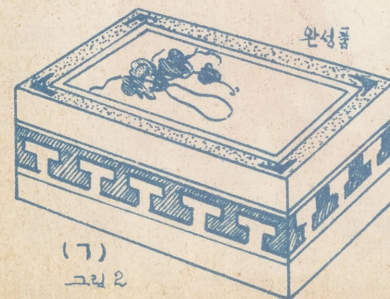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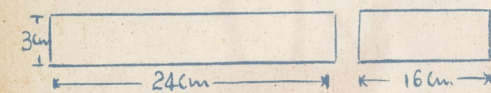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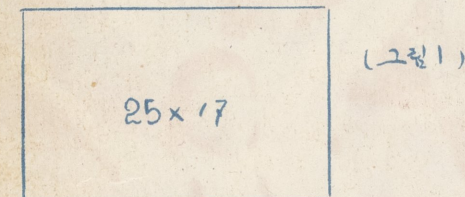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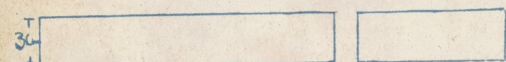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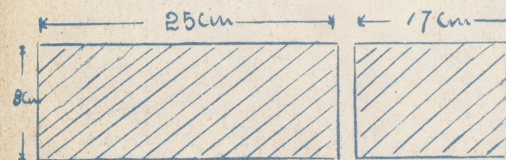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0년 제11호 (총 133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1608　값 25 전　150,000부 발행

공작 크루쇼크원들에게 주는 자료

만들어 보세요

나무 쪼각을 리용하여 나무함을 만드는데 우선 판자를 준비하여 대패로 밀고 그림 (1)과 같은 넓이로 뚜껑, 밑함, 뚜껑 걸리개 등을 판자에 제도하고 톱으로 끊는다. 뚜껑을 옆에 대는 것을 길이 25cm에 높이 3cm로 끊은것 2개, 모에 대는 것은 길이 17cm 높이 3cm의 것을 두장, 뚜껑 우에 붙이는 판자는 25cm×17cm의 넓이 것을 준비한다.

밑함은 길이 25cm 높이 8cm의 판자 두장, 모에 대는 것은 17cm×8cm의 넓이의 판자 두장, 밑 바닥에는 25cm×17cm의 판자를 준비한다.

뚜껑 걸리개

뚜껑을 덮으면 꼭 맞게하는 것으로 그림 (2)의 ㄷ을 말한다.

넓이 24cm×3cm의 판자 두장, 16cm×3cm 넓이의 판자 두장으로 만든다.

제일 먼저 그림 (2)의 ㄷ 밑함을 만든다.

옆 판자 두장에다 모를 대고 갑풀을 칠하고 못을 친 다음에 밑에 댈 판자에도 갑풀을 칠하고 이를 잘 마추어 대고 못을 친다.

다음에 뚜껑 걸리개를 밑함에 그림 (2)의 ㄷ과 같이 붙인다.

뚜껑도 이와 같은 순서로 만든다.

완료되면 련마 사지로 다듬고 함에 그림 (2)의 ㄱ과 같이 무늬를 파거나 또는 그린다.

다음에 그 우에 리스를 칠한다.